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독서 토론 동아리 부장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위는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였고, 2위는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아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서 토론 노트를 보여 주면서) 이 노트는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 전 활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윗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에 책의 제목과 독서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책의 내용 및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논제는 따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노트를 작성하면 첫째, 다른 친구들의 독서 상황을 확인하여 토론 진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저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논제로 삼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론할 때 자신의 논거와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는 중에는 다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거나 궁금한 것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 노트에 토론 결과나 토론할 때 잘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적어 두면 다음 번 토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 토론 노트는 독서에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토론 노트를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어서, 우리 동아리의 독서 토론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겠어.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해야겠어.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 요즘 독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 논제와 관련 없는 얘기로 토론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고…….
- 학생 2 : 부장은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군.
- 학생 3 : 지난 시간 학교 행사 때문에 설문 조사 참여율이 낮았는데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 학생 4 : 독서 토론 노트는 좋은 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을 텐데…….
- 학생 5 : 부장 말대로 독서 토론 노트를 쓰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당장 써 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편향된 것은 아닌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

[3~5]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나무 해설가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해설가 : 지난 시간에 나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그림을 보여 주며)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멋지지 않나요?

진행자 :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해설가 : 우리 조상들은 산, 물, 나무를 그림의 중요한 소재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뭘지 짐작이 되십니까?

진행자 : 소나무가 아닌가요?

해설가 : 맞습니다. (㉡ 표를 제시하며) 표를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나무보다도 소나무가 두 배 정도 많이 출현했습니다.

진행자 :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설가 : 그림에서 소나무만 다시 볼까요? (소나무를 확대해 찍은 ㉢ 사진을 보여 주며) 나무의 굵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행자 : 굵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소나무가 그 기조에 적합하죠. 또 사철 푸른 특성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설가 : 그렇습니다. 그림의 나무를 통해 선조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노래를 한 곡 들려 드릴 텐데요, 가사에 나무가 등장하니 잘 들어 보세요. (㉣ 음악을 들려준다.)

진행자 : 제가 어릴 때 들던 대중가요네요. 노래에 나무가 등장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 대중가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대중가요에는 어떤 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까요?

진행자 : 음……. 소나무인가요?

해설가 :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진행자 : 의외네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설가 : 대중가요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 영상을 보여 준다.) 시냇가 버드나무는 떠난 고향을 연상케 하는 대표적인 소재이죠. 최근에는 버드나무가 줄어든 만큼 노랫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진행자 : 예술 속에 나타난 나무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3.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설가의 물음에 대해 질문의 형식을 취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② 해설가의 말에 호응하며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해설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해설가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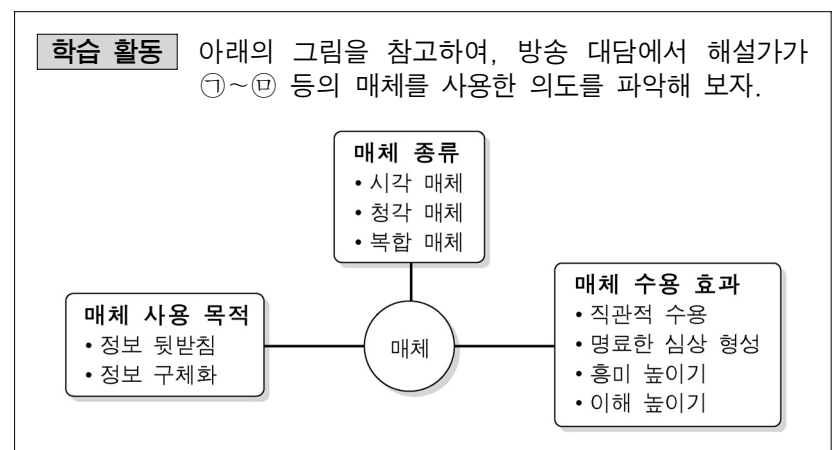
4. <보기>는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 언니와 동생이 나눈 대화이다. 위 대담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니 :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라……. 꽤 흥미로운걸.  
 동생 : 그러게. 나도 재미있었어. 근데 언니, 요즘 나오는 노래 중엔 나무가 나오는 거 없어?  
 언니 :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 :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까?

- ① 대담은 <보기>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② 대담은 <보기>에 비해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③ <보기>는 대담에 비해 일정한 절차를 중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④ <보기>는 대담에 비해 특정한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⑤ 대담과 <보기>는 모두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5. 위 대담에 관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그림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려고.
- ② ㉡: 산수화에 등장한 나무의 출현 순위를 확인하게 하여 소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라는 정보를 뒷받침 하려고.
- ③ ㉢: 소나무의 굽은 모습에 집중하게 하여 전통 미의식의 바탕이 되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수용하게 하려고.
- ④ ㉣: 노래에 등장하는 나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나무가 그림 이외의 예술 분야에도 등장함을 직관적으로 인식 하게 하려고.
- ⑤ ㉤: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버드나무를 영상으로 감상하게 하여 소나무와 대비되는 예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지 하게 하려고.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는 ‘똑똑 우체통’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 누리집 알림방에 작성한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한 학생이 ‘똑똑 우체통’에 넣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가)



‘똑똑 우체통’을 이용해 주세요. ‘똑똑 우체통’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

똑똑 우체통은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또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어 주신 이야기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별하여 학교 누리집과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 우체통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여러분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모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외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교실 청결은 물론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 나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미세 먼지가 많을 때, 비가 온 뒤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 다만 계단이나 복도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 역

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비가 와 진흙이 묻은 날에는 청소 시간 내에 ㉢ 다 끝내지 못해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 도구를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화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아 신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실내화 착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85%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쾌적한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건강, 청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모든 학생들이 실내화를 착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다음은 (가)를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똑똑 우체통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알려 줘야지.

② 똑똑 우체통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 줘야겠어.

③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려 줘야지.

④ 똑똑 우체통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⑤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려 줘야겠어.

7. (나)와 같이 건의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실내화 착용의 이로운 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 ② 실내화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과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높인다.
- ③ 실내화 착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④ 실내화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한다.
- ⑤ 글쓴이 자신의 경험은 제시하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건의 내용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은 ‘나쁜 영향’으로 수정한다.
- ② 맥락을 고려하여 ㉡을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에 ‘청소를’을 첨가한다.
- ④ 글의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은 삭제한다.
- ⑤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은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
- 글감 선정 : 학교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잡상’이란 글감을 택하여 글을 써야겠다.
- 글 쓰는 목적 :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
- 자료 수집 :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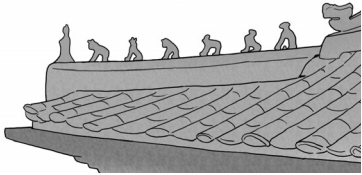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와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잡상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

- 첫 번째 단락 : 잡상의 개념을 정의해야겠다.
- 두 번째 단락 : 잡상의 다양한 형상을 예시하고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 마지막 단락 : ㉠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어야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해야겠다.

(나) 학생의 초고

궁궐을 자주 다녀 본 친구들도 궁궐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조형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잡상이라 부르는데요, 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뜻합니다.

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러 개를 동시에 지붕 위에 올리는데 그 형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봉황이나 용, 해태와 같은 전설 속의 동물도 있고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 이유는 잡상이 궁궐에 행운을 불러오고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집에 처용의 그림을 걸어 나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9.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를 학교 친구들로 한정된 것에서, 작문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잡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정의, 예시 등을 통해 잡상을 설명한 것에서, 작문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에서, 작문은 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 방법을 달리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잡상을 선정하여 소개한 것에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을 참고하여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지금도 궁궐 지붕 위에는 잡상들이 열병식을 하듯이 일렬로 늘어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상에는 나라의 근간인 궁궐을 보호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 ③ 잡상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궁궐 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궁궐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 ④ 궁궐과 잡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궁궐과 잡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⑤ 잡상은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러한 잡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 가야겠습니다.

1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머,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14.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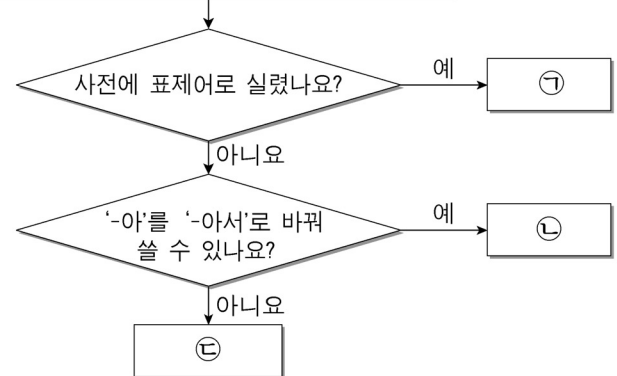
- 열심히 삶을 ㉠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 닮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닮아가다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닮아 가다 또는 닮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닮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닮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닮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닮아 가다 또는 닮아가다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 어서 와라. ㉠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 네, 엄마. ㉡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들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 B급 영화: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제작되어 완성도가 낮은 상업적인 영화.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
- ④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맥거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 ②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④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⑤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 ② ㉡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 ③ ㉡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다.
- ④ ㉡는 ㉠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는 ㉠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 윗글의 ㉢과 <보기>의 ㉣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의 일부 분일 뿐이다.

- ① ㉢은 ㉣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② ㉢은 ㉣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③ ㉢은 ㉣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④ ㉣은 ㉢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⑤ ㉣은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빛이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을 의미한다.

백열전구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이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끊어지기 쉬워 백열전구의 수명도 짧다.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수명은 짧아진다.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이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5~6배 정도 길다.

발광 다이오드(LED)는 p형,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드는데 전압을 가하면 두 반도체 사이에는 일정한 전압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는 그 전압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접합된 두 반도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에 따라 필요한 전압의 크기나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 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

발광 다이오드를 조명용 발광 소자로 사용하려면 가시광선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단색 빛을 내는 발광체에 형광 물질을 입혀 형광등처럼 빛이 방출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손실이 작다.

2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서는 빛과 적외선이 방출된다.
- ②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구조는 복잡하지만 수명은 길다.
- ③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형광등의 빛의 색이 결정된다.
- ④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
- ⑤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백열전구는 형광등보다 적외선 방출이 많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겠군.
- ② 백열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은 낮아지겠군.
- ③ 형광등에서 빛 변환 효율이 높은 형광 물질을 사용하면 형광등의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겠군.
- ④ 두 조명 기구에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면 소비 전력 이 작은 쪽이 발광 효율이 높은 것이군.
- ⑤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빛을 생산하지만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 고고학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진화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한다. 진화론이 적용된 사례를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는 ㉠서기 1세기부터 약 1천 년 동안 어느 한 지역에서 출토된 조리용 토기들의 두께와, 토기에 탄화된 채로 남아 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토기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진화고고학은 이렇게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과 전분이 많은 씨앗들은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일 때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이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 본 결과,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5세기 이후부터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은 그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두께가 얇은 토기가 사용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기 두께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분 함량이 높은 곡물을 아기들의 이유식으로 이용한다면 여성들의 수유기가 ㉤단축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께가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도 가능하다. 생태학적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한 것이다.

진화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호 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 이 관점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

이처럼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추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따라서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22. 윗글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추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 ② 발굴로 얻어지는 유물은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③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 ④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 ⑤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23. ㉢의 입장에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열전도율은 더 높아진다.
- ② 곡물의 전분 함량 변화는 토기의 두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 ③ 토기 두께의 변화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 ④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 ⑤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다.

2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연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두께가 얇은 토기가 생존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 ②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주위 환경이 바뀌어 토기를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 ③ 식량을 채취하는 여건이 악화되면서 토기 제작에 쏟을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④ 기후의 변화로 주요 식재료가 바뀌면서 음식을 조리하기에 편리한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⑤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토기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늘어난다는
- ② ㉢: 일으킨
- ③ ㉣: 짧아짐에
- ④ ㉤: 나타나고
- ⑤ ㉥: 얹매이는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유는 인간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하지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 즉 원유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게 되면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원유를 열처리하여 미생물을 제거한 것이다.

원유를 열처리하게 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처리 조건을 알아야 한다. 이때 D값과 Z값을 이용한다. D값은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 그 개체 수를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만약 같은 온도에서 개체 수를 1/100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하면 된다. Z값은 특정 D값의 1/10 만의 시간에 개체 수를 1/10로 줄이는 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에서 열처리한다고 하자. 이때 360초 후에 남아 있는 개체 수가 10개라면 D값은 360초가 된다. 만약 이 D값의 1/10인 36초 만에 미생물의 개체 수를 100개에서 10개로 줄이고자 할 때의 온도가 65℃라면 Z값은 2℃가 된다.

이러한 D값과 Z값의 원리에 기초하여 원유를 열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먼저, 원유를 63℃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그 안에 포함된 미생물을 99.999% 이상 제거하는 ‘저온살균법’이 있다. 저온살균법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저온순간살균법’이다. 저온순간살균법은 원유를 75℃에서 15초간 열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생물 제거 효과가 저온살균법과 동일하지만 우유의 대량 생산을 위해 열처리 온도를 높여서 열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의 유통 기간은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이다. 만약 우유의 유통 기간을 늘리려면,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134℃에서 2~3초간 열처리하는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처리된 우유를 멸균 포장하면 상온에서 1개월 이상의 장기 유통이 가능하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유는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② 우유의 유통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려면 원유를 초고온 처리법으로 열처리해야 한다.
- ③ 열처리 시간이 같다면 원유에서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온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원유를 저온살균법으로 열처리하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제거되지만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은 제거되지 않는다.
- ⑤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하면 저온순간살균법을 사용할 때보다 원유를 열처리한 후 제거되지 않고 남은 미생물의 개체 수가 많다.

27.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의 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세 개의 병이 있다. 이 중 한 병에는 미생물 A, 또 다른 병에는 미생물 B, 나머지 한 병에는 미생물 C가 각각 1,000개씩 들어 있다고 가정하자. 각 미생물의 열처리 온도 및 그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은 다음과 같다.

A : 60℃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10℃  
B : 60℃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5℃  
C : 65℃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5℃

- ①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0℃에서 100초 동안 열처리하면, A와 B의 남은 개체 수는 각각 10개씩 된다.
- ②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5℃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A의 개체 수는 B의 개체 수보다 더 적다.
- ③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열처리하면, B는 A에 비해 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다.
- ④ A, C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5초 동안 열처리하면, A의 개체 수는 C의 개체 수보다 더 적다.
- ⑤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5℃에서 5초 동안, C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5초 동안 열처리하면, B와 C의 남은 개체 수는 각각 10개씩 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alpha \times$  성과’( $0 \leq \alpha \leq 1$ )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alpha$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alpha$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lpha$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alpha$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alpha$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alpha$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28.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30.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lpha$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lpha$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alpha$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 ㉣ )한다.

- |   | ㉡  | ㉢  | ㉣  |
|---|----|----|----|
| ① | 증가 | 감소 | 감소 |
| ② | 증가 | 증가 | 감소 |
| ③ | 증가 | 감소 | 증가 |
| ④ | 감소 | 증가 | 증가 |
| ⑤ | 감소 | 증가 | 감소 |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A]

[B]

[C]

[D]

[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뒤흔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웅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묵, 「울정기(栗亭記)」 -

-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A]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율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뿔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션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뺏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때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적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껍적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슨 소림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까?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고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쪼각을 배 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E.L.S.: 익스트림 롱 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홍부 아내 하는 말이,
-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맙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 홍부가 하는 말이,
-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यो?”
-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쏘냐.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볼작시면, ㉠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쫂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홍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찢 노끈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흙들이 오망자루 쫂무니에 비스 착고, 바람맞은 병인 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스비스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 “네가 뉘고?”
- “내가 홍부요.”
- “홍부가 뉘 아들인가?”
-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यो? 비웁니다. 형님 전에 비웁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혈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혈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 [중간 줄거리 : 어렵게 살던 홍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 놀부 놈의 거동 보소.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 막대 둘러메고 제비를 몰러 갈 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

“제비 인제 온다.”

하고 보니, 태백산 갈가마귀 차돌도 못 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 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정게 뜨고 보다가 하릴없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 제비 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제,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꿸고 다만 하나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하여 ㉡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꺾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달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엮어 두 엮더니, 십여 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 홍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사 가라사대,
- “이놈 이제 전답 재물이 여윌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물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報讐瓢)\*’라 금자로 새겨 주더라.

- 작자 미상, 『홍부전』 -

\* 보수표: 원수를 갚는 박.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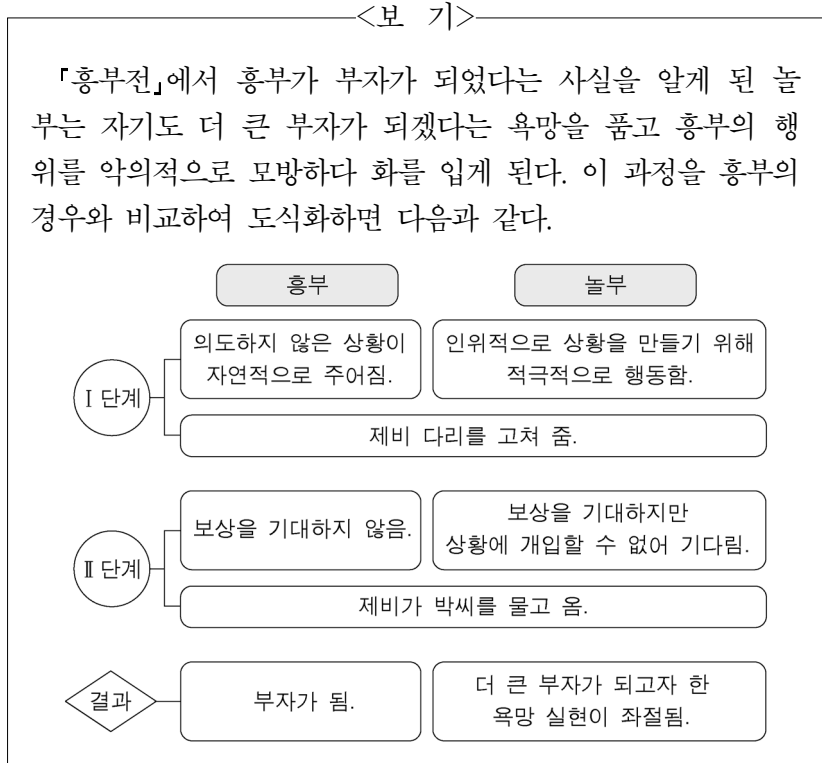
-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4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홍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에서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홍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 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 주는군.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42.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 ② 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방귀 똥 놀이 성내는 격이군.
- ③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군.
- ④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다니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 ⑤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격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A]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B]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影帶麥風欹  
[C]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벌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D]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

- \* 낙목한천: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 은한: 은하수.
- \* 자규: 두견새.
- \* 매우: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 맥풍: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 촉규화: 접시꽃.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촉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촉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